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 살아지다2 ‘승기천을 기억하다’				
구술자명	이태승	면담자	남희현		
면담장소	주안역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19년 11월 17일(일) 오후6시, 12월 13일(금) 오후6시30분	회차	2	시간	12분 30초, 60분 18초
자료번호	Mi chuholCA-07-00001158				
구술 개요	<p>주안3동 사미골에서 10대째 살고 있음. 틀만 있는 다리가 승기천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다리. 신기촌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도로가 생김. 승기천은 지류가 많아 논 사이로 물이 흘렀음. 승기천을 복개하며 인주대로가 생김. 흙으로 된 둑 때문에 승기천은 비가 오면 흙탕물이 됨. 물에서 미꾸라지, 붕어, 개구리 등을 잡기도 함. 7~80년대 논머리, 주안사거리, 시민회관 일대가 개발됨. 더 이상 수봉산 현충탑 옆으로 물이 흐르지 않음.</p>				
주요 색인어	주안3동, 사미골, 부평 이씨, 집성촌, 승기천, 논머리, 뚝방, 우마차, 다리, 새미, 신기촌, 시민회관, 신기사거리, 기와집, 복개, 인주대로, 흙탕물, 미꾸라지, 붕어, 개구리, 수봉산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소개				음성 1 00:00:00~ 00:07:45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주안3동 사미골에서 10대째 살고 있음. - 부평 이씨는 임진왜란 이후 미추홀구에 살며 80년대까지 집성촌을 형성함. - 16~17세기 성리학의 영향으로 향토세력이 자리 잡으면서 부평 이씨가 미추홀구 각 동네의 시조가 됨. - 과거 주안 일대의 지명은 사미. 사미골, 사충리, 주안정, 주안동 등으로 이름이 바뀌어옴. - 승기천은 수봉산에서 시작하여 독정이 고개, 용현사거리, 용남시장을 거쳐 인천고 쪽으로 흘러감.					
2. 승기천에 대한 기억(1)					
- 주안 일대에서 계속 살아 승기천에 대한 기억이 많음. - 논머리에서 사미골까지는 논길이였음. 중간에 승기천이 지나가는 곳에만 뚝방처럼 길이 다져져 있었음. - 우마차 틀만 있는 것이 승기천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다리였음. - 다리 건너에 있는 산의 중턱을 넘으면 마을이 있었고 정상으로는 성덕교회가 있었음.				음성 1 00:07:46~ 00:10:41	
3. 주안 일대에 대한 기억				음성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미를 ‘새미’ 라고 부르기도 함. - 신기촌이 형성되며 인구가 증가하자 주안사거리 일대의 논밭에 길을 만들. - 신기시장 입구로 5번 버스가 다님. - 시민회관에서 신기사거리까지의 길은 논 한 가운데를 뚫어 신기사거리까지 연장한 것. 길 좌우로는 논이 있었음. - 늪밭 같은 느낌의 승기천을 논밭의 모양새로 만들. - 승기천은 지류가 많아 논 사이로 물이 흐를 수 있었음. 60년대 중반 이후 논머리, 신기촌 일대에 사람들이 유입되며 하천 개념이 됨. - 초등학교 무렵에는 돌이 아닌 흙을 다져 독을 만들. 	<p>00:10:42~ 00:11:42, 음성2 00:00:00~ 00:07:15</p>	
<p>4. 남기고 싶은 기억</p>	<p>음성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여 년 된 본가 기와집이 사진으로 남아 있지 않음. - 해가 갈수록 기억이 흐릿해지는 느낌 	<p>00:07:16~ 00:09:50</p>	
<p>5. 승기천의 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개가 이루어진 것은 80년대 초반. - 논 가운데 있던 승기천 독방을 일직선으로 시멘트화함. 이후 주변도 메워지게 됨. - 평지화가 이루어지며 인주대로가 만들어짐. - 주안3동의 번지수가 7~800번지에서 1400번지까지 늘어남. - 복개공사를 본 것은 고등학교 시절. 	<p>음성2 00:09:51~ 00:12:42</p>	
<p>6. 승기천에 대한 기억(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이 있었고, 흙으로 된 독 때문에 비가 오면 흙탕물이 되었던 기억. - 물에서 미꾸라지, 붕어, 개구리 등을 잡기도 함. 	<p>음성2 00:12:43~ 00:14:14</p>	
<p>7. 주안 일대의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머리 일대가 7~80년대에 개발됨. 논머리 쪽의 기와집은 신식의 빨간 기와집이었음. - 주안사거리, 시민회관 일대로 2~4층의 신식 빌딩이 들어섬. - 제일시장은 70년대부터 만들어짐. - 논머리 쪽에는 구멍가게, 금성연마, 목재공장, 양조장, 상여집 등이 있었음. - 시민회관사거리로 개천 같은 것이 있었으나 집들이 생기면서 결국 복개됨. 	<p>음성2 00:14:15~ 00:19:10</p>	
<p>8. 승기천 & 미추홀구에 대한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와 달리 육지에서는 별을 보기 어려워짐. -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공기도 안 좋아짐. - 더 이상 수봉산 현충탑 옆으로 물이 흐르지 않음. 	<p>음성2 00:19:11~ 00:24:21</p>	

<p>- 독정이 쪽의 승기천을 보면 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이 내려온 길을 따지면 넓다고도 생각할 수 있음.</p>		
--	--	--